

7월 CBSI 0.3p 하락한 62.1 기록

- 2개월 연속 하락, 4.1대책 추가 조치 발표 CBSI 개선 못해 -

- 2013년 7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0.3p 하락한 62.1을 기록함.
 - 이로써 CBSI는 전월인 6월에(전월비 3.7p 하락)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함.
 - CBSI는 계절적 요인과 4.1대책 및 추경예산 발표 등에 힘입어 3월~5월 동안 3개월 연속 상승했었으나(3개월 동안 11.8p 상승), 6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함.
 - 결국 4.1대책과 추경예산 발표 등이 더 이상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를 개선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되며, 특히 7월에는 4.1대책 후속 조치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CBSI가 소폭 하락해 후속 조치 발표가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를 개선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후속 조치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대책의 핵심 내용은 여전히 입법화되지 않고 있고, 7월 초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주택거래와 분양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결과로 판단됨.
 - CBSI 수치는 2개월 연속 하락에 따라 3개월 전인 4월의 62.8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고, 기준선(100.0)에 훨씬 못미친 60선 초반에 머물러 건설업체 체감경기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3년 8월 CBSI 전망치는 7월 실적치 대비 1.2p 하락한 60.9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소폭 하락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8월에는 건설경기 침체 수준이 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현재로서는 8월에도 침체된 건설경기를 개선할만한 요인이 부족한 가운데, 혹서기로 인해 공사물량이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도 여전히 8월에도 건설경기의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중소기업 지수는 상승하였으나, 중견업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7.1p 상승한 85.7을 기록해 지난 1월(85.7) 이후 6개월만에 다시 80선을 넘어서며,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다소 완화됨.
 - 중소기업 지수 역시 전월비 6.9p 상승한 48.1을 기록하며,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다소 완화됨. 그러나, 중소기업 지수는 대형, 중견업체 지수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해 체감경기가 가장 침체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중견업체 지수가 전월비 14.3p나 급락한 50.0을 기록해 7월 CBSI 하락을 주도함. 결국 중견업체 지수는 지난 2월(48.0) 수준으로 다시 침체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2.6, 98.1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6.1, 83.7을 기록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86.0, 80.8을 기록해 자금조달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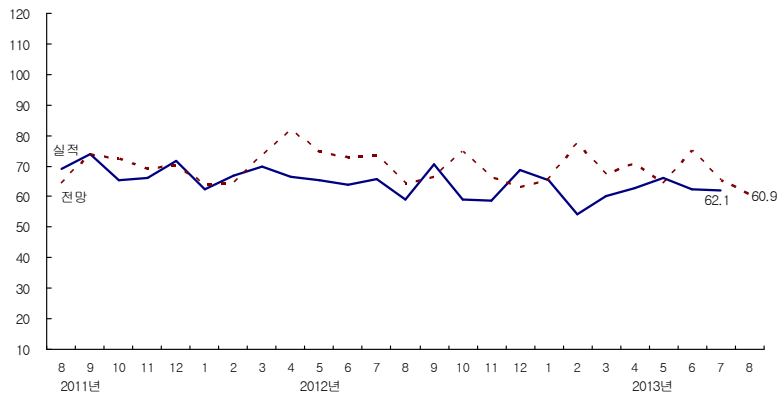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3년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7월 CBSI 0.3p 하락한 62.1 기록
2개월 연속 하락, 4.1대책 추가 조치 발표 CBSI 개선 못해

- 2013년 7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0.3p 하락한 62.1을 기록함.
 - 이로써 CBSI는 전월인 6월에(전월비 3.7p 하락)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함.
 - CBSI는 계절적 요인과 4.1대책 및 추경예산 발표 등에 힘입어 3월~5월 동안 3개월 연속 상승했었으나(3개월 동안 11.8p 상승), 6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함.
 - 결국 4.1대책과 추경예산 발표 등이 더 이상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를 개선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되며, 특히 7월에는 4.1대책 후속 조치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CBSI가 소폭 하락해 후속 조치 발표가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를 개선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이는 후속 조치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증가 폐지 등 4.1대책의 핵심 내용은 여전히 입법화되지 않고 있고, 7월 초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주택거래와 분양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결과로 판단됨.
- CBSI 수치는 2개월 연속 하락에 따라 3개월 전인 4월의 62.8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고, 기준선(100.0)에 훨씬 못미친 60선 초반에 머물러 건설업체 체감경기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중소기업체 지수는 상승하였으나, 중견업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7.1p 상승한 85.7을 기록해 지난 1월(85.7) 이후 6개월만에 다시 80선을 넘어서며,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다소 완화됨.
 - 중소기업체 지수 역시 전월비 6.9p 상승한 48.1을 기록하며,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다소 완화됨. 그러나, 중소기업체 지수는 대형, 중견업체 지수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해 체감경기가 가장 침체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중견업체 지수가 전월비 14.3p나 급락한 50.0을 기록해 7월 CBSI 하락을 주도함. 결국 중견업체 지수는 지난 2월(48.0) 수준으로 다시 침체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분	2012년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망	
					1월	2월					실적	전월 전망치		
종합	70.6	58.9	58.7	68.9	65.4	54.3	60.3	62.8	66.1	62.4	62.1	65.4	60.9	
규모별	대형	91.7	76.9	78.6	92.9	85.7	72.7	69.2	71.4	78.6	78.6	85.7	85.7	78.6
	중견	61.5	57.7	55.6	64.0	66.7	48.0	66.7	66.7	66.7	64.3	50.0	63.0	55.6
	중소	56.4	39.3	38.9	46.3	40.0	40.0	42.6	48.1	50.9	41.2	48.1	44.2	46.2
지역별	서울	80.5	69.9	69.6	79.3	76.2	63.6	64.8	66.9	68.6	71.6	68.7	75.1	67.6
	지방	56.5	43.2	42.5	52.1	49.0	41.8	53.6	58.7	62.2	52.6	51.9	50.3	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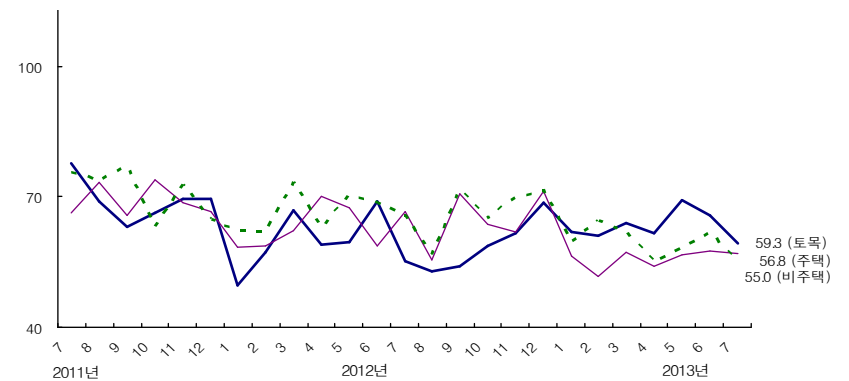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편, 2013년 8월 CBSI 전망치는 7월 실적치 대비 1.2p 하락한 60.9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소폭 하락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8월에는 건설경기 침체 수준이 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현재로서는 8월에도 침체된 건설경기를 개선할만한 요인이 부족한 가운데, 혹서기로 인해 공사물량이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도 여전해 8월에도 건설경기의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 7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업체가 전월 대비 2.9p 하락한 68.7을, 지방도 0.7p 하락한 51.9를 기록함.
 - 서울업체는 전월보다 2.9p 감소한 68.7을 기록함. 지난 6월 71.6으로 5개월만에 70선을 회복한 이후, 한달만에 다시 60선으로 회귀함.
 - 4.1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의 주택 및 비주택 물량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 같았으나, 6월을 기점으로 취득세 감면 효과가 종료된데 따른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침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지방업체는 전월 대비 0.7p 하락한 51.9로 감소폭이 크지 않았는데 이는 이미 6월에 전월 대비 9.6p나 하락한데 따른 결과로 판단됨. 결국, 지수가 2개월 연속 50선에 머물러 경기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3년 8월 전망치의 경우 서울업체는 7월보다 1.1p 감소한 67.6을, 지방업체는 1.6p 하락한 50.3으로 전망해 건설 경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7월 공사 물량지수 59.8 기록, 두달 연속 50선에 머물러 부진 지속

- 2013년 7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2.2p 증가한 59.8을 기록, 지난 6월 57.6에 이어 두 달 연속 50선에 머물렀다. 또한, 7월 지수로는 지난 2004년 7월 54.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매우 부진한 상황임.
 - 물량지수는 올 2~4월 50선에 불과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부진했음.
 - 4.1대책 발표 및 공공발주 소폭 증가 영향으로 지난 5월에 64.6로 60선을 기록하였으나, 6월에 다시 7.0p 하락한 57.6를 기록함.
 - 7월에는 지수가 전월보다 소폭(2.2p) 개선된 59.8을 기록함.
 - 통상 7월에는 여름철 비수기의 영향으로 물량지수가 전월 대비 2~3p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올 7월은 6월지수가 매우 부진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 효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지수 자체도 여전히 50선에 불과하고 공종별로도 모두 전월 대비 악화되어, 물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공종별로 모든 공종이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며, 토목이 59.3, 주택과 비주택이 각각 56.8, 55.0을 기록해 모두 50선에 머물렀다.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토목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6.4p 하락한 59.3을 기록함. 지난 4월과 5월 각각 65.7, 69.1를 기록해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6월 들어 3.4p 하락하였으며, 7월에도 6.4p 감소해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0.6p 감소한 56.8을 기록, 지수가 뚜렷히 회복되지 않고 지난 3월부터 50선 중반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 물량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비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6월 61.8로 소폭 회복하는 듯 했으나, 7월 들어 다시 전월 대비 6.8p 하락한 55.0을 기록해 공중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업체 규모별로 대형과 중소기업이 각각 전월 대비 14.3p, 6.8p 증가한데 반해 중견업체가 전월 대비 14.3p 감소해 중견업체의 물량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4.3p 증가한 78.6을 기록해 지난 5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함. 공중별로 토목과 비주택 물량 지수가 각각 전월 대비 7.1p, 7.3p 감소해 71.4로 동일한 수치를 기록함. 한편, 주택물량 지수는 전월 대비 7.2p 증가한 78.6을 기록해 지수가 다소 개선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 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59.8	78.6	50.0	49.1	64.5	52.6
	전망	59.9	78.6	51.9	47.1	65.5	51.0
토목	실적	59.3	71.4	46.2	60.0	59.2	59.5
	전망	53.5	64.3	48.0	47.1	56.0	49.4
주택	실적	56.8	78.6	50.0	39.1	63.6	46.6
	전망	56.6	71.4	46.2	51.1	57.1	55.8
비주택	실적	55.0	71.4	51.9	39.2	55.4	55.4
	전망	55.1	71.4	50.0	41.7	57.1	52.1

주 : 실적은 2013년 7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8월 예측지수임.

- 중견업체의 경우는 전월 대비 14.3p 감소한 50.0을 기록함. 작년 8월 수주 위축과 함께 지수가 50.0을 기록하였는데 11개월만에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임. 공중별로 토목, 주택, 비주택이 각각 전월 대비 9.4p,

13.0p, 12.4p 감소해 지수가 더욱 악화됨.

- 중소기업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6.8p 증가한 49.1을 기록, 중견업체 물량지수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함. 공중별로 토목과 비주택이 각각 전월 대비 9.5p, 14.1p 하락한 60.0, 39.2를 각각 기록함. 주택은 39.1로 6월 38.9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 지역별로 서울은 전월 대비 3.2p 증가한 64.5를, 지방은 3.9p 감소한 52.6으로 서울 업체 지수가 소폭 개선되는데 반해, 지방은 감소하였음.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3.2p 증가한 64.5를 기록함. 주택이 63.6으로 공중별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토목이 59.2, 비주택이 55.4를 각각 기록함.
 - 지방업체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3.9p 감소한 52.6를 기록함. 공중별로 토목이 59.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비주택이 55.4, 주택이 46.6을 각각 기록함.
- 2013년 8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7월 실적치보다 0.1p 상승한 59.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통상 7월과 8월은 여름철 비수기의 영향으로 지수가 60~70선으로 낮은 것이 일반적이나, 올 8월 전망치 59.9는 예년보다 10p 이상 낮음.
 - 이와 같은 물량침체 상황이 8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공중별로 토목과 주택이 7월보다 각각 5.8p, 0.2p 하락한 53.5, 56.6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비주택 물량지수는 55.1로 7월 55.0와 동일한 수준으로 물량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금조달 상황에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2.6, 98.1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6.1, 83.7을 기록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86.0, 80.8을 기록해 자금조달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급	실적	86.0	92.9	85.7	78.2	86.8	84.7
		전망	84.1	100.0	80.8	69.2	88.2	77.5
	자금조달	실적	80.8	100.0	71.4	69.1	84.9	74.6
		전망	79.5	100.0	69.2	67.3	85.5	70.0
인력	수급	실적	92.6	100.0	92.9	83.6	97.8	84.7
		전망	94.1	100.0	96.3	84.6	99.7	85.1
	인건비	실적	86.1	100.0	88.9	66.7	93.9	74.1
		전망	88.5	100.0	88.5	75.0	94.6	79.0
자재	수급	실적	98.1	114.3	92.6	85.5	106.1	86.1
		전망	100.9	114.3	96.3	90.4	108.0	89.6
	비용	실적	83.7	107.1	85.7	53.8	94.4	67.1
		전망	85.8	100.0	92.6	61.5	93.0	74.7

주 : 실적은 2013년 7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8월 예측지수임.